

## 상담자발달과 지혜에 관한 연구: 상담자발달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지혜 비교\*

이 수 립†

한국청소년상담원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자발달수준에 따라 상담자의 지혜를 비교함으로써 상담자발달과 지혜의 관련성에 대해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자와 일반인(비상담자)의 경력관련 변인과 지혜와 상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지혜와 일반인(비상담자)의 경력, 교육기간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혜 및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 요인에서는 상담자의 경력, 교육기간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상담자의 지혜와 경력이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공분산분석을 통해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를 통제한 후, 상담자발달수준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초심상담자 집단과 숙련상담자 집단, 일반인(비상담자) 집단의 지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숙련상담자 집단의 지혜가 가장 높았으며, 초심상담자 집단, 일반인(비상담자) 집단 순이었다. 지혜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숙련상담자 집단이 지혜의 하위요인 중 '안목과 통찰', '조망수용', '정서조절'에서 초심상담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초심상담자 집단이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 요인에서 일반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지혜, 상담자, 지혜발달, 상담자발달, 숙련상담자, 초심상담자,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

\* 본 연구는 이수림의 박사학위논문(2008)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이수림,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E-mail : sulim2@kyci.or.kr

지혜는 성공적 인간발달의 진수라고 여겨지며, 많은 성격이론가들은 지혜를 인간발달의 높은 경지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다(Ardelt, 2005; Clayton, 1982; Orwoll & Perlmutter, 1990). 지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에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나 인간발달의 지향점으로 여겨지며 관심 받는 주제가 되었다. 한편, 상담분야에서는 상담자발달을 지향하고 연구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발달과 지혜와의 관련성을 조망하고자 상담자발달수준별 지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하였다. 따라서 지혜 개념, 지혜와 상담자발달에 관한 검토를 통해 연구목적과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혜의 개념

지혜의 개념 정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인지적인 접근, 성격적 접근, 초월적 접근으로 개념화되었다(Ardelt, 2003; Baltes & Smith, 1990; Webster, 2003). 인지적 접근에서 Baltes와 동료들은 지혜를 삶의 계획이나 검토와 같은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서 정의하였고, 지혜의 5가지 요소로서 삶에 대한 ‘실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인생맥락적 사고’, ‘가치상대주의’, ‘불확실성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았다(Baltes & Smith, 1990; Baltes & Staudinger, 2000).

성격적 접근에서 Holliday와 Chandler(1986)는 지혜로운 사람의 성격특징으로 ‘탁월한 이해력’, ‘판단력’, ‘의사소통 기술’, ‘유능성’,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겸손’을 들었다. Clayton과 Birren(1980)은 지혜를 인지적·반성적·정서적 차원의 종합으로 정의하였다. Ardelt(2004)는 이 차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는데, 인지적 차

원은 인생과 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자하는 바람을 일컬으며 반성적 차원은 자기검토, 자각, 자기통찰, 조망력을 일컬으며, 정서적 차원은 타인에 대한 공감, 자비를 일컫는다. Webster(2003)는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지혜의 주요요인을 ‘경험’, ‘정서’, ‘회상’, ‘개방’, ‘유머’로 정의하였다.

초월적 접근에서 Wink와 Helson(1997)은 초월적 지혜는 자아경계를 초월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혜라고 하였다. Curnow(1999)는 초월적 지혜의 개념에서 중요한 4가지 중심요소를 자아지식(self-knowledge), 초연(detachment), 통합(integration), 자아초월(self-transcendence)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아지식은 자신의 무의식적 측면에 대한 자각을 넓혀가는 것이며, 초연은 더 정확하게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통합은 자아지식을 통합해나가고 투사와 같은 방어기제를 줄여가는 것이다. 자아초월은 생물사회적 조건에 기초한 경험의 한계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는 것이다(Levenson, Jennings, Aldwin, & Shiraishi, 2005).

이렇듯 각 개념마다 지혜에서 중시하는 측면은 다르지만, 지혜가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학자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졌다(Baltes & Staudinger, 2000; Montgomery, Barber, & Mckee, 2002; Taranto, 1989; Webster, 2003). 이수림(2008)은 기존의 여러 이론의 지혜 개념을 토대로 지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지혜는 인지적 측면에서 높은 안목과 통찰력, 탁월한 판단력을 의미하며, 통합적 측면에서 개인 내적으로 자아의 균형적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것, 관계적 측면에서 타인을 향한 긍정적 관심과 애정을 의미한다. 즉, 지혜는 인지적, 통합적, 관계적 요인의 종합적 탁월성이다. 이 지혜 개념화의 특징은 지혜가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성하였고, 동양 문화적 관점이 적용된 개념으로써 ‘내적 통합’ ‘자각’ ‘관계성’을 포함한 종합적 개념이다.

이수림(2008)은 이 지혜개념을 토대로 지혜를 측정하는 한국판 지혜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녀는 본인의 지혜 개념을 토대로 기존의 지혜 척도들의(Ardelt, 2003, Baltes & Smith, 1990; Levenson et al, 2005; Webster, 2003; Yang, 2000) 요인과 문항들을 검토하여 번안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타당화를 하였다. 지혜 척도의 5개 하위요인들은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이다. ‘안목과 통찰’ 요인은 삶에서의 문제나 대인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인생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안목과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조절’ 요인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며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환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를 촉진하는 것과 같은 정서조절력을 의미한다. ‘조망수용’ 요인은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경험의 통합’ 요인은 과거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회상하고, 과거의 중요한 경험을 현재와 관련지어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과 포용’ 요인은 타인을 향한 긍정적 관심이 있으며, 타인을 돕고 포용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5가지 요인을 이수림(2008)이 개념화한 지혜 개념의 틀과 비교하여 보면, 인지적 측면은 높은 안목과 통찰 및 판단력을 일컬으며 지혜 척도의 ‘안목과 통찰’, ‘조망수용’ 요인과 관련된다. 통합적 측면은 자신의 내적인 통합을 의미하며 ‘정서조절’ 요

인과 ‘경험의 통합’ 요인과 관련되며, 관계적 측면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관심과 포용’ 요인과 관련된다.

#### 지혜의 발달

지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혜의 발달에는 개인적 특성, 직업경로, 자기통합과 자각의 노력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Ardelt, 2000; Kekes, 1983; Kramer, 1990; Levitt, 1999). 일련의 종단연구에서 영성이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직업에서 지혜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Helson & Srivastava, 2002; Wink & Dillon, 2003; Wink & Helson, 1997). Wink와 Helson(1997)은 피험자들을 27세, 52세에 반복 측정하였는데, 심리치료자들의 지혜가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Helson과 Srivastava(2002)의 연구에서 61세의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과거의 심리적·영적 직업경로가 유의미한 영향(3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itt(1999)는 13명 승려를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지혜 발달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그녀는 수도승들의 수도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발달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지혜발달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수도승들의 명상, 수행을 통한 자기자각, 스승의 가르침 등을 밝혔다. 이러한 수도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수도승들은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며, 타인에게 더 자비롭게 되고, 덜 시기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게 되었다.

다른 실험연구에서는 심리치료전문가들과 같은 학력수준의 일반인집단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지혜 수행을 비교하였는데, 심리치료전

문가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혜 관련 수행을 보였다(Baltes, Staudinger, Maercker, & Smith, 1995; Smith, Staudinger, & Baltes, 1994; Staudinger, Smith, & Baltes, 1992). 그들은 심리치료전문가들의 전문적 훈련경험, 실습, 삶의 주제를 다루는 방대한 경험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개인들보다 지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직업적 경험의 특징은 삶과 자신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자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혜 발달과 관련 된다고 보았다.

Hartman(2000)은 지혜가 인생의 내외적 경험에 의해 촉진된다고 밝혔는데, 특히 힘들었던 인생사건, 전환사건이 지혜를 촉진시키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그녀는 주요 삶의 위기와 전환사건은 개인에게 그들의 삶을 재구성하도록 압력을 주며 위기 극복을 통해 지혜를 발달시키게 되며, 상실과 좌절의 반복적인 경험은 인간 한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며 이는 지혜 발달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Glück과 Bluck, Baron, McAdams(2005)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대응할 때,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나갈 때에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Levitt와 Frankel 등(2003)은 새로운 인생사건이 통찰을 통해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하였는데, 삶의 경험을 통한 통찰의 핵심기제는 '새로운 경험의 통합'으로서의 도전적 사건은 개인에게 위기감과 강한 정서를 일으키고, 자기 자각을 증대시키고, 그들의 삶과 관계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의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났듯이, 지혜는 수도나 심리치료와 같은 직업적 경험을 통해

발달하며 힘든 인생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통찰과 자신에 대한 인식의 재조직화를 통해 발달한다. Ardel(2004)는 끊임없는 자기검토와 자기자각은 문제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모든 가능한 관점을 고려하여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전체적 과정은 자아중심성을 약화시키고, 타인, 자아, 세계, 자연에 대한 더 큰 직관과 공감적 이해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혜가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담자는 직업적 특성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지혜 발달이 촉진될 수 있는 경험을 한다. 즉, 상담자는 많은 심리상담 경험을 통해 타인의 인생위기와 간접적으로 접하고, 그 속에서 내담자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내는 과정을 함께하며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한다. 이를 통해 간접적이지만 인생의 힘든 경험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자신에 대한 자각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지혜 발달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상담자발달과정에서 상담자훈련과 슈퍼비전 등 교육을 통해 삶의 문제를 통찰하고자 노력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상담자발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상담자의 지혜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상담자발달과 지혜 발달

상담자발달이론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상담자발달의 특징이 지혜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Hogan(1964)은 상담자발달단계에서 1수준 상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신경증적이며 의존적인 것이 특징이나, 가장 높은 4수준의 상담자들은 자율성, 통찰, 알아차림, 안

정감, 안정된 동기수준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Loganbill, Hardy와 Delworth(1982)는 8가지 상담과 관련된 주제가 정체기, 혼란기, 통합기의 세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보았는데, 8가지 주제들은 상담기술과 기법들을 숙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상담자 자기이해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 잘 통합된 이론적 정체감, 내담자들 간의 개인차와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능력, 상담목표를 세우고 상담계획을 설정하는 능력, 상담에 대한 자신의 동기를 깊이 이해하고 유지하는 능력, 전문가로서의 가치관과 윤리이다. 그들은 이 주제별로 상담자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으며 가장 높은 발달 수준인 통합기의 특징은 재구조화와 통합, 새로운 인지적 이해, 융통성이다. 아울러 심리적 안정감과 슈퍼비전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나타나며, 세상에 대해서도 더 객관적 개방적으로 보게 되며, 새롭고 창의적인 각도에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이규미 등, 2001).

Jennings와 Skovholt(1999)는 뛰어나다고 추천된 숙련상담자(master therapist)의 특징으로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 영역에서의 능력을 확인하였다. 즉, 이들의 인지적 특성으로는 배움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축적된 경험이 풍부했고, 삶에서의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에 대해 참기보다는 해결하려고 하였다. 정서적 특성으로는 자기자각, 성찰, 타인의 피드백에 대해 비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심리적으로 건강하였고 정서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심리적 건강이 상담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고 있었다. 관계적 특성으로 숙련상담자들은 타인을 경청하고 돌보는

등 관계적 기술에 능통했다.

Skovholt와 Ronnestad(1992)는 상담자로서 입문하여 은퇴하기까지의 발달경로를 포함시켜 8단계 상담자발달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여덟 단계로는 인습적 단계, 전문적 훈련기로의 이행, 대가 모방단계, 조건적인 자율성 단계, 탐구 단계, 통합단계, 개별화단계, 개별화 보존단계이다. 이들은 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담자의 경험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개인은 전문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를 높은 수준에서 통합하게 되며, 외부 지향적이고 경직되었던 상담스타일과 개념화방식이 내부지향적 형태로 변화되면서 융통적이고 창의적인 상담스타일을 가지게 되며 지속적인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또한, 인수된 지식보다 자기 구성적 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불안감이 감소하고 평정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자기이해의 촉진, 자아통합, 자기 구성적 지식의 사용, 평정감 획득을 의미하며, 이는 지혜 개념과 관련된다.

Goodyear(1997)는 숙련상담자가 초심상담자보다 깊이 있는 사례개념화를 하는 것을 ‘실천적 지식’의 발달로 해석하였다. 그는 상담자의 전문성의 특성을 ‘실천적 지식’ ‘자기 구성적 지식’이라는 특성에서 지혜 개념과 연결시켜 제안하였다. 지혜 개념 정의에서 지혜가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상담자의 실천적 지식이 “지혜”와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상담자발달의 핵심기제로써 성찰(reflection)은 중요한 요인이다(Skovolt, Ronnestad, & Jennings, 1997). Schon(1983)도 전문적 발달의 핵심 기제는 실천적 지식의 발달이며,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자기성찰을 통해 획득된다고

주장하였다. 상담자의 자기성찰에 대한 연구(김진숙 2005;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유성경, 심혜원 2005)에서는 상담자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의 자기성찰이 많아지고, 이러한 자기성찰은 상담자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Ericsson과 Lehmann(1996)도 전문성을 쌓기에는 “10년의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나 경험 그 자체가 전문성 발달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성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위의 상담자발달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전문성발달 수준이 높은 숙련상담자는 높은 통찰력, 융통적이고 창의적 사고, 성찰, 자아통합, 자기 구성적 지식, 실천적 지식, 객관적인 조망, 창의적 사고, 대인관계 기술, 정서안정성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혜 개념에서 내포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높은 수준의 상담자발달의 특징과 지혜 개념이 공유하는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통찰, 자기 구성적 지식, 실천적 지식 등은 지혜의 인지적 측면인 안목과 통찰,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과 관련되며 자기성찰, 통합적 사고 등은 지혜의 통합적 측면인 자아통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발달의 ‘성찰’의 강조는 지혜 발달을 촉진시키는 자기자각과 반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찰은 자아통합과 자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써 지혜를 촉진시키며 지혜 발달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의 관계기술은 지혜의 이타주의, 관심과 포용, 타인에 대한 애정 등 관계적 측면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상담자발달의 특성은 실천적 지식, 통찰, 성찰과 자아통합, 관계기술 등의 탁월성을 의미하며 이는 지혜 개념과 공유되어 지혜 발달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연구목적 및 필요성

노안영(2001)은 지혜가 상담 또는 개인의 바람직한 삶의 방법을 찾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인다면, 지혜는 모든 상담적 접근 및 방법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상담 장면은 다양각색의 사례에 따라, 상담기법의 적용과 윤리적 문제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되며, 상담자는 단지 기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것보다 다양한 사례에 맞는 지혜로운 적용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담자는 상담에 관한 지식 이상의 지혜를 요구받는다. 이수립(2008)에 따르면 지혜는 인지적, 통합적, 관계적 측면의 탁월성으로써 상담자의 전문적 지식과 인간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흔히, 상담자는 사람 자체가 도구라고 한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기법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닌 총체적인 사람으로서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그동안 기존의 상담자발달 연구는 상담기법(손은정, 이해성, 2002; 심홍섭, 1998; 이선자, 최혜림, 2002; 이윤주, 김계현, 2002)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상담자의 성숙과 같은 인간적 특징은 연구의 어려움으로 많이 연구되지 못하였다. 즉, 상담자의 전문성과 인간적 자질을 포괄한 총체적인 상담자발달에 관하여 연구된 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상담자발달과 지혜 발달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발달의 궁극적 지향이 지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상담자발달의 지혜 개념을 도입하여 상담자발달 연구와 지혜 연구의 두 분야를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상담자의 지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담자발달 연구에 새로

운 영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안영(No, 1993, 1998)은 상담자의 지혜가 중요함을 주장하면서, 상담자의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상담심리학자의 지혜 척도’를 개발하였다. 상담자 지혜 척도의 9개 하위 척도는 ‘인성’, ‘윤리적 책임감’, ‘태도’, ‘인지적 지식과 지적 기술’, ‘경험에 근거한 지식’, ‘훈련’, ‘대인관계 스타일’, ‘개인차에 대한 이해’,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이다. 그의 상담자 지혜 척도는 상담 장면에서 필요한 요소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상담자에게 상담 장면에서의 지혜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나 상담에서의 지혜는 상담 장면을 넘어서서 상담자의 일반적인 삶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담에 관한 지혜는 상담자의 전반적 삶의 지혜에 영향을 줄 것이며, 상담자의 지혜 역시 상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수림, 2008). 이수림(2008)은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지혜가 높은 상담자들이 지혜가 낮은 상담자들보다 사례개념화, 공감, 역전이 조절 등 상담개입에서 더 높은 수행을 나타내었다. 또한, 상담자의 지혜는 상담자의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관계형성, 작업동맹을 거쳐서 내담자의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지혜 연구자들이 제안하듯이 상담자의 지혜가 중요시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상담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지혜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Johnson, 1995). Kramer(2000)는 지혜가 상담과 관련된다 고 주장하면서 이는 타인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요적이지 않고 높은 성찰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특히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의 가치, 생각, 행동, 결정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장면을 제공하며, 생산적 관심을 보여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술들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하지 않고 자비로운 태도로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상담자의 지혜는 내담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지혜로운 상담자의 상담의 질이 더 양호하며 내담자의 상담성과를 촉진시킨다는 의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담자발달과 지혜 발달은 상호 의미가 공유되는 측면이 있으며, 상담자발달과정을 통해 지혜가 발달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발달수준과 지혜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연구는 상담자교육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상담자발달수준에 따라 지혜가 발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담자발달과정에서 지혜가 촉진되는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상담자교육에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고 상담외의 다른 분야의 교육에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발달수준에 따라 상담자의 지혜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일반인 및 상담자의 지혜가 경력, 학력 등의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고,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경력에 따라 발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일반인, 초심상담자, 숙련상담자간의 지혜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상담자집단이 초심상담자집단에 비해 지혜가 높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집단이 일반인(비상담자)집단에 비해 지혜가 높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 상담자

본 연구에는 대학상담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사설 상담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자들이 참여하였다. 설문지 221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한 189명(85.5%)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남자가 24명(12.7%), 여자가 165명(87.3%)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3세에서 54세의 범위였다(평균 35.12세, 표준편차 6.75). 결혼사항은 미혼이 89명(47.1%), 기혼이 100명(52.9%)이었다. 상담경력은 평균 5.43년(표준편차 4.65)이었고, 1급 상담심리사수준의 상담자는 64명(33.9%)이었고, 2급 수준은 86명(45.5%), 기타 사설 자격증보유자는 6명(3.2%), 무자격자는 39명(20.7%)이었다. 1급 자격수준에 해당자는 상담관련자격증(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 1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최소 상담경력 5년 이상인 상담자들이었다. 2급 자격수준의 해당자는 상담관련자격증 2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상담경력이 1년 반 이상인 상담자였다.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3급 청소년상담사, 사설기관 발행 자격증 소지자였으며, 무자격자는 자격증이 없는 상담자였다. 근무기관은 대학상담센터가 115명(60.8%)이고, 공공청소년상담기관이 41명(21.7%), 시민단체 등 기타가 12명(6.3%)이었다. 학력은 석사이하 30명(15.8%), 석사졸업이 84명(44.4%), 박사과정이 23명(12.2%), 박사수료이상이 51명(26.9%)이었다.

#### 일반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혜 수준을 알아

보기 위해 상담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인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비교집단은 상담자집단과의 학력을 통제하기 위해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122명으로 선정하였다. 비교집단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56명(45.9%), 여자가 66명(54.1%)이었으며, 연령은 24세에서 55세의 범위였다(평균 37.13세, 표준편차 7.84). 그들의 학위 전공분포는 사범계열 46명(37.7%), 상경계열 19명(15.6%), 이공계열 17명(13.9%), 생명과학 및 의학계열 16명(13.1%), 사회과학계열 13명(10.7%), 인문계열 6명(4.9%), 기타 5명(4.1%)이었다. 또한, 직업분포는 교사 53명(43.4%), 연구원 30명(24.6%), 공무원 11명(9.0%), 사무직 11명(9.0%), 기타 11명(9.0%), 기술직 6명(4.9%)이었다.

### 측정도구

#### 한국판 지혜 척도

이수립(2008)이 개발, 타당화한 지혜 척도로 36문항이며 리커트(Likert)형 5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지혜척도의 개발 과정은 기존 척도에서 지혜 개념에 적절한 문항을 1차 선정하여 번안하였고, 이 106개의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원 척도요인과 문항들을 상담심리학 박사 5인에게 제시하여 요인에 적합한 2차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예비문항 56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예비척도를 대학생 및 일반인 피험자에게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36개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고 지혜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구성된 지혜 척도는 36문항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요인구조는 5요인으로 하위요인명과 문



항수는 ‘안목과 통찰’ 10문항, ‘조망수용’ 5문항, ‘정서조절’ 8문항, ‘경험의 통합’ 7문항, ‘관심과 포용’ 6문항이다. ‘안목과 통찰’ 요인의 대표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특수한 개인사항을 고려한다”, “나는 인생 문제마다 어떤 특정 영역(예, 가정, 자신, 일)이 더 중요함을 이해하고 고려 한다”가 있다. ‘정서조절’ 요인의 대표문항으로는 “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자제를 잃지 않고 내 감정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가 있다. ‘조망수용’ 요인의 대표문항들은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잠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가 있다. ‘경험의 통합’ 요인의 대표문항으로는 “나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는 일은 중요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내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삶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주 경험 한다”가 있다. ‘관심과 포용’ 요인의 대표문항으로는 “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관련된 상황(누구, 이유 등)에 관계없이 매우 안타까움을 느낀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가 있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 는 .85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alpha$ 는 안목과 통찰 .80, 정서조절 .68, 조망수용 .76, 경험의 통합 .74, 관심과 포용 .65이었다. 역문항은 반대로 환산하도록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점수 합이 높을수록 지혜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수림(2008)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 구조의 적합도는 TLI .90, CFI .91, RMSEA .04로 양호

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응답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사회적 선회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Crowne과 Marlowe(1960)의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 척도를 단축형으로 구성한 이주일(1988)의 사회적 선회도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13문항으로 신뢰도 계수  $\alpha$ 는 .74이었다.

###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 질문지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상담자의 학위, 상담관련 자격증, 개인상담 경험, 상담 접근법, 상담기관에 대해서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 절차

상담자 설문은 대학상담기관, 공공 청소년 상담기관, 사설 상담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자들에게 개별적인 협조를 구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인집단의 설문지는 일반 회사, 학교, 공공기관에 개별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에 미치는 사회적 선회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주제를 알리지 않았으며, 전반적 생활 및 삶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 분석방법

SPSS 15.0을 활용하여 지혜와 상담자 특성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지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다변량공분산분석

(MANCOVA)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선회도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공변인으로 선정하고, 두 집단 간의 사회적 선회도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 지혜수준을 비교하였다.

## 결 과

### 지혜와 상담자 특성 변인들의 기초통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지혜 변인들과 상담자 특성 변인들에 대한 피험자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변인들의 피험자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일반인 n=115	상담자 n=188	전체 n=303
지혜	17.38(1.35)	18.38(1.64)	17.99(1.61)
안목과통찰	3.84(0.38)	3.87(0.31)	3.86(0.34)
정서조절	3.18(0.42)	3.53(0.43)	3.40(0.46)
조망수용	3.55(0.46)	3.69(0.49)	3.63(0.49)
경험의통합	3.55(0.48)	3.85(0.50)	3.74(0.52)
관심과포용	3.26(0.49)	3.44(0.49)	3.37(0.49)
연령	37.13(7.84)	35.12(6.75)	35.88(7.24)
직업경력	11.38(8.31)	5.43(4.65)	7.69(6.92)
교육기간	19.41(1.83)	19.68(1.78)	19.57(1.80)

( ) 표준편차

### 지혜와 상담자특성 간의 상관

상담자의 상담경력 등 전문적 특성과 지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담자 연령, 상담경력, 교육기간, 슈퍼비전 경험횟수, 교육 분석 횟수와 지혜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혜는 상담경력( $r = .18, p < .05$ ), 교육기간( $r = .21,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상담자의 연령, 사례수, 슈퍼비전 횟수, 교육 분석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혜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 요인이 경력, 교육기간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r = .19 \sim .31, p < .01$ )을 나타냈으며, 조망수용 요인은 사례수와 정적 상관( $r = .17, p < .05$ )을 나타냈다. 다른 하위요인들은 상담자특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관분석 결과, 상담경력과 교육기간이 많을수록 지혜와 지혜 하위요인 중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이 높게 나타나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일반인의 연령, 경력, 교육기간 변인 등 경력관련 특성과 지혜 및 하위요인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혜와 하위요인들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혜의 하위요인 중 조망수용 요인과 교육기간이 정적 상관( $r = .26, p < .01$ )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 다변량공분산분석을 통한 상담경력에 따른 지혜 비교

#### 상담자특성에 따른 집단 간 지혜 비교

상담자의 성별, 결혼유무에 따른 집단 간 지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를 공변인으로 선정하고 사회적 선회도와 각 집단 간의 회귀동등성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이후에 각 집단별로 공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지혜와 하위요인들의 점수 차

표 2. 지혜와 상담자 특성 간의 상관(n=18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지혜	-												
2. 안목과통찰	.72***	-											
3. 정서조절	.71***	.38***	-										
4. 조망수용	.80***	.61***	.49***	-									
5. 경험의통합	.76***	.53***	.39***	.43***	-								
6. 관심과포용	.72***	.32***	.42***	.46***	.43***	-							
7. 연령	.06	.03	.09	.10	-.01	.02	-						
8. 경력	.18*	.22**	.21**	.24**	.01	.02	.52***	-					
9. 교육기간	.21**	.19**	.22**	.31**	.02	.04	.48***	.77***	-				
10. 사례수	.10	.12	.14	.17*	-.06	.04	.27**	.47***	.62***	-			
11. 평균회기수	.06	.10	.11	.11	.03	-.09	.45***	.44***	.47***	.18*	-		
12. 슈퍼비전횟수	-.00	.01	.13	.09	-.07	-.15	.27**	.41***	.53***	.44***	.34***	-	
13. 교육분석횟수	.01	.04	.13	.03	-.01	-.11	.05	.33***	.32***	.16*	.27***	.38***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지혜와 일반인 특성 간의 상관(n=121)

	1	2	3	4	5	6	7	8	9
1. 지혜	-								
2. 안목과통찰	.62***	-							
3. 정서조절	.71***	.22***	-						
4. 조망수용	.80***	.30***	.49***	-					
5. 경험의통합	.76***	.35***	.39***	.43***	-				
6. 관심과포용	.72***	.12***	.42***	.46***	.43***	-			
7. 연령	-.03	.03	.00	.03	-.07	-.10	-		
8. 경력	-.07	-.01	.02	-.07	-.03	-.11	.90***	-	
9. 교육기간	.15	.14	.04	.26**	.11	-.07	.28**	.03	-

\*  $p < .05$ , \*\*  $p < .01$ , \*\*\*  $p < .001$

이것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Wilks'  $\lambda = .99$ ,  $F(5, 181) = 0.55$ ,  $m$ ). 또한, 상담자의 결혼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지혜와 하위요인들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Wilks'  $\lambda = .98$ ,  $F(5, 181)$

=0.84, *m*).

**상담경력수준에 따른 지혜 차이**

상담자의 상담경력에 따라 지혜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자경력을 자격증을 기준으로 1급 상담심리사 수준, 2급이하 상담심리사로 구분하여 숙련상담자 집단과 초심상담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초심상담자집단과 숙련상담자집단의 경력, 교육기간, 사례수, 슈퍼비전 횟수 등의 평균비교를 통하여 두 집단의 상담경력 변인들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4 참조). 즉, 두 집단 간 상담경력 변인들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두 집단의 상담자발달수준이 잘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숙련상담자 및 초심상담자집단과 일반인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와, 숙련상담자(1급)와 초심상담자(2급 이하),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변량공분산분석을 실시하고 LSD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를 공변인으로 선정하고 지혜와 하위요인들간의 공분산분석을 통한 수정된 평균비교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집단 간 지혜와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Wilks'  $\lambda = .76$ ,  $F(10, 590)=8.60$ ,  $p<.001$ ,  $\eta^2=.13$ ). 유의도 수준은 본페로니(Bonferroni) 방식으로 수정하여 ANOVA결과를 검증하였다(.05/6=.008).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안목과 통찰 요인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2,299)=3.77$ , *m*).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들의 사후검증 결과, 조망수용에서는 숙련상담자( $M_{조망수용}=3.81$ )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인( $M_{조망수용}=3.54$ )과 초심상담자( $M_{조망수용}=3.62$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정서조절 요인에서는 숙련상담자( $M_{정서조절}=3.62$ ), 초심상담자( $M_{정서조절}=3.49$ ), 일반인( $M_{정서조절}=3.17$ ) 순으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에서는 숙련상담자( $M_{경험의통합}=3.86$ ,  $M_{관심과포용}=3.43$ )와 초심상담자( $M_{경험의통합}=3.85$ ,  $M_{관심과포용}=3.44$ ) 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일반인( $M_{경험의통합}=3.56$ ,  $M_{관심과포용}=3.26$ )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숙련상담자가 초심상담자보다 지혜와 정서조절, 조망수용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

표 4.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상담자 특성 변인들의 평균비교

	초심상담자 n=116	숙련상담자 n=48	F(1, 162)
연령	33.25(6.90)	37.79(4.85)	17.25***
경력	3.10(2.90)	9.78(4.27)	124.13***
교육기간	18.86(1.34)	20.94(1.52)	74.83***
사례수	55.37(81.26)	210.63(165.04)	65.00***
평균회기수	12.16(6.45)	16.44(8.08)	12.79***
슈퍼비전횟수	23.60(19.75)	56.13(29.39)	68.05***
교육분석횟수	28.04(38.68)	87.50(85.66)	37.61***

\*\*\**p* < .0001

표 5. 공분산분석에 따라 수정된 집단 간 지혜의 평균비교

	일반인	초심상담자	숙련상담자	F(2, 299)	사후검증
	(n=117)	(n=121)	(n=65)		LSD
지혜	17.37	18.22	18.67	21.22**	3>2>1
안목과 통찰	3.84	3.82	3.96	3.77	-
정서조절	3.17	3.48	3.62	32.03**	3>2>1
조망수용	3.54	3.62	3.81	6.96**	3>1=2
경험의 통합	3.56	3.85	3.86	12.62**	3=2>1
관심과 포용	3.26	3.44	3.43	6.71**	3=2>1

\* $p < .008$ , \*\* $p < .001$

으며, 초심상담자는 일반인보다 지혜와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세 집단 간 비교에서 안목과 통찰요인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이는 일반인-초심상담자간의 차이가 변별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추가적으로 안목과 통찰 요인에 대해 숙련상담자집단과 초심상담자집단간의 지혜 차이검증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1, 185)=8.65, p<.008, \eta^2=.05$ ). 결과적으로, 가설 1은 지지되었으나, 지혜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집단보다 초심상담자, 숙련상담자집단의 지혜와 안목과 통찰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가설 2가 지지되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발달수준과 상담자의 지혜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자 및 일반인의 경력관련

변인과 지혜와의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상담자발달수준별 지혜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일반인집단, 초심상담자집단, 숙련상담자집단 간의 지혜수준을 비교하였다. 이 때, 학력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반인집단의 학력을 석사이상으로 맞추었으며, 긍정적 응답편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선희도(social desirability)를 공변인으로 한 다변량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일반인의 경우 경력, 교육기간과 지혜와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위요인 중 ‘조망수용’이 교육기간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상담자의 경우, 지혜는 상담경력, 교육기간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에서는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이 상담경력, 교육기간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례수와 ‘조망수용’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조망수용’은 일반인, 상담자 두 집단에서 모두 교육기간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 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담경력 및 교육기간과 지혜 및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의 크기는 약했으나(.18-.31), 상담경력과 교육이 지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혜와 경력, 교육기간간의 상관 크기가 낮은 것은 피험자 집단이 석사이상의 고학력집단인 것과 상담경력도 초심상담자가 평균 3년이고, 숙련상담자가 평균 9년으로 변별이 작은 한계가 있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Ardel(2003)의 연구에서 지혜와 교육기간과의 상관이 .21, 직위와 상관이 .19로 상관크기가 작았다. 또한,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직업 등 개인 삶의 경로가 미치는 영향이 15%였다는 Staudinger 등(1998)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동일한 직업경로상에서 교육기간 및 경력과 지혜와 관련성의 설명량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인 집단의 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조망수용’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상담자집단이 경력, 교육기관과 지혜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낸 것은 대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험자집단의 특성을 볼 때, 상관크기가 작은 한계가 있으나 지혜 및 하위요인들이 상담경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상담경력을 쌓는 것의 관련성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기수, 슈퍼비전 횟수, 교육 분석 횟수는 지혜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논의해보면, 첫째 회기수, 슈퍼비전 횟수와 교육 분석 횟수의 경우, 측정상의 부정확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험자들은 대략 짐작의 횟수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이나 교육기간은 산출하기 쉽고 명확한 반면 횟수의 측정치는 무경험에서 매우 많은 횟수(100회)까지 다양한 응답으로 편차가 커서 상관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둘째, 슈퍼비전이나 교육 분석은 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단지 횟수만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요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질적 연구 등 다른 분석방법이나 연구방법으로 지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발달 수준을 자격증을 기준으로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로 상담자 발달수준을 구분하였다. 기존의 상담자발달 연구들은 종단적 연구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손은정, 이해성, 2002; 이운주, 김계현, 2002; 전재영, 2001; Brammer, 1997; Cummings, Hallberg, Martin, Slemon, & Hiebert, 1990).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음 몇 가지로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의 경력을 가지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위50%, 하위50%로 구분한다면 모든 피험자를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51번째와 49번째가 경력자와 초심자로 다르게 구분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상위 30%와 하위30%만 골라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중간 피험자들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나, 피험자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둘째, 경력이나 자격증과 같은 객관적 경력요인들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숙련상담자는 10년 이상, 초보상담자는 2년 미만과 같이 특정 경력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이다(손은정, 이해성, 2002). 기존의 상담자발달연구에서 특정 경력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담자 발달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심홍섭, 1998). 또한, 자격증 종별에 따라 숙련자, 초심자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들이 거의 모두 소지하고 있으며 2급은 경력2년, 1급은 5년 정도의 상담경력과 상담훈련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숙련상담자(1급)와 초심상담자(2급 이하)로 구분하고, 상담경력 관련 변인들의 차이검증을 통해 두 집단이 상담자발달수준별로 잘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다변량공분산분석 결과, 숙련상담자, 초심상담자, 일반인집단 간 비교에서는 숙련상담자 집단의 지혜가 가장 높았으며, 초심상담자집단, 일반인집단 순이었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안목과 통찰’과 ‘조망수용’에서는 일반인과 초심상담자 간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조절’,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에서는 초심상담자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숙련상담자는 ‘안목과 통찰’, ‘정서조절’, ‘조망수용’에서 초심상담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담자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지혜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전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이다(Helson & Srivastava, 2002; Smith, Staudinger, & Baltes, 1994; Staudinger, Smith, & Baltes, 1992; Wink & Helson, 1997).

앞의 상관분석결과에서도 상담경력, 교육기간과 지혜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집단 간 차이분석에서도 숙련상담자의 지혜가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숙련상담자가 초심상담자나 일반인보다 지혜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어떤 영향 때문일까? 본 연구에서는 지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추론해 보고자 한다. 숙련상담자의 지혜가 더 높게 나타난 것, 경력 및 교육기간과 지혜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상담경력을 쌓아가는 데 지혜를 촉진시키는 경험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초심상담자에서 숙

련상담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지혜가 촉진되는 직업적경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심리치료자들이 지혜가 높은 것은 다양한 인생 문제를 많이 다루고, 직업적 훈련을 받는 것이 지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Baltes, Staudinger, Maercker, & Smith, 1995; Smith, Staudinger, & Baltes, 1994; Staudinger, Smith, & Baltes, 1992). Levitt(1999)의 승려의 지혜 발달 연구에서도 승려들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대해 탐구하는 것, 서로 토론식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지혜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멘토와 같은 역할자가 있는 것이 지혜를 촉진시켰다(Staudinger & Baltes, 1996).

상담자들의 직업적 경험은 상담사례를 다루는 것, 상담자교육과 훈련이 될 것이다. 상담자들은 직업장면에서 상담자로서 훈련을 통해 개인과 삶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을 배우고 학습한다. 상담자 직업경험에는 슈퍼바이저가 멘토 역할을 하며, 많은 사례를 분석해보고 슈퍼비전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조망해보는 훈련을 한다. 실제, 숙련상담자가 초심상담자보다 사례개념화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이 있다(이윤주, 김계현, 2002; 전재영, 2001; Brammer, 1997; Cummings, Hallberg, Martin, Slemon, & Hiebert, 1990).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경험은 사례를 넘어서서 인생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상담자는 어려운 상담사례를 맞닥뜨린다면 상담자가 역전이를 경험 할 경우에 자신에 대해 검토하고 자기자각을 하는 노력을 하게 된

다. 보다 자세히, 지혜 하위요인별로 직업적 촉진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목과 통찰’ 요인은 일반인 집단과 숙련상담자, 초심상담자 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일반인집단과 초심상담사 집단간의 점수가 변별되지 않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초심상담자집단과 숙련상담자집단간의 비교에서는 숙련상담자집단이 초심상담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혜의 ‘안목과 통찰’ 요인은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자의 지속적인 상담경험과 사례분석경험, 슈퍼비전 교육경험들을 통한 삶과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 요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는 지혜는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라고 정의한 Baltes 등의 연구(1995)에서 상담자들의 방대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지혜를 촉진시켰을 것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정서조절’ 요인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키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머를 사용하여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상담 경험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나타내는 상담자에 대한 전이감정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습득하며,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습득하게 된다. 상담자에게 역전이 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역전이 관리능력으로 자기통찰, 자기통합, 불안관리, 공감능력, 개념화기술이 제시된 바 있다(Van Wagoner, Gelso, Hayes, & Diemer, 1991) 역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상담자의 전문성, 경력이 높을수록 역전이 조절을 잘하는 것을 설명한다(신교숙, 2000; 양경연, 2005; 장세미, 1999).

또한, 상담자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능력이 증가하였으며(김현정, 2003), 이러한 부분은 상담경력에 따른 지혜의 정서조절요인이 발달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조망수용’ 요인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상담에 필요한 기본요건이며 공감능력의 핵심이다. 상담자는 상담경험과 상담자교육 중 공감훈련 등을 통해 공감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조망수용 요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의 통합’ 요인과 ‘관심과 포용’ 요인은 상담자가 일반인보다 높았으나 숙련상담자와 초심상담자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초심상담자가 일반인보다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포용은 상담자와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특성이다. 즉,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상담자가 되진 않을 것이며 상담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을 좀 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경험의 통합’은 자신에 대한 자각과 성찰 등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해 통합해나가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상담자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질이 된다. 따라서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질이므로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된다. 숙련상담자와 초심상담자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경험의 통합’요인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합하고 현재와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상담기법이라기 보다는 삶에 대한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관심과 포용’ 요인도 타인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포용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 삶의 태도에 가깝다. 따라서 상담경력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기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더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숙련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자발달과정을 통해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이나 지혜가 촉진되었다고 느꼈던 원인 등에 대해 심층면접을 해봄으로써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지혜 발달에 대해 횡단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발달연구에서 횡단적 자료가 주는 개인 내에서의 발달을 관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상담자의 지혜 발달에 대해 종단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다면 개인의 지혜 발달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혜 발달에 대한 현상은 확인하였으나, 어떤 측면이 지혜를 발달시키는 지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얻지 못했다. 이는 추후 지혜가 높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어떤 직업적 또는 개인적 경험이 지혜 발달을 촉진시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경력별 집단의 구분을 자격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각 집단별 차이검증을 통해 경력 상으로 두 집단이 타당하게 구분됨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경력, 자격증 급수, 사례수 등 양적인 구분에 제한되었으며, 실제 상담사례의 성과나 효과성과 같은 상담의 질적인 구분을 하지는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혜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행동과 다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측정 이외의 타인 평가나 객관적 평정 등의 측정방식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지혜를 일반인집단과 초심상담자, 숙련상담자집단의 비교를 통해 숙련상담자의 지혜가 초심상담자,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직업적 경험이 지혜를 촉진시켰으며, 이는 상담자발달에 따른 상담자교육 및 훈련과 개인적 노력의 영향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중 상담과 관련된 개인적 노력은 개별적이어서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지만, 상담자교육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자 교육의 어떤 부분이 지혜 발달에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상담자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첫째, 사실적 지식과 이론적 개념, 둘째는 기법, 셋째는 상담자 자신에 관한 영역이다(Loganbill et al, 1982). 지식과 이론전달을 위해서는 강의, 세미나 등일 것이고, 기법을 위한 경험적 교육을 위해서는 슈퍼비전, 사례실습, 역할연습 등일 것이며, 상담자 자신에 대한 것은 상담자 자신의 이해를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슈퍼비전이 해당될 것이다(이형득 등, 1999). 기존의 상담자교육의 강조는 상담의 전문적 자질을 체득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실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새롭게 조망하고 통찰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상담의 전문성발달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례분석, 공감훈련,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 등의 상담자훈련은 지혜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지혜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지혜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방식과도 연관될 수 있다. Staudinger와 Baltes(1996)의 ‘생각의 상호촉진’(Interactive Minds)은 슈퍼비전과

실습과 관련되며, Glück과 Baltes(2006)의 삶의 특정 문제 사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상담자들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이는 주로 상담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통찰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례분석 및 공감훈련 등을 통해 지혜가 촉진되리라고 여겨진다. 상담자교육 등 직업적 경험을 통해 지혜가 촉진되는 한편, 지혜가 촉진됨으로써 상담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지혜는 상담자 개인의 삶의 만족이나 역경의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Ardelt, 2000a, 2005; Hartman, 2000), 이는 상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수립(2008)은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회기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줄을 밝힌 바 있다. 즉, 상담자 교육을 통하여 지혜가 촉진되는 부분도 있으나, 더 나아가 상담자의 지혜가 촉진된다면 상담자 개인과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담자교육에 접목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간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교육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자의 개인성장을 위해 개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는 정도이다(이형득 등, 1999). 현행 상담자 교육과정이 상담자 전문성발달에 미흡하다는 문제제기로 제시된 것이 성찰적 실천의 패러다임이다(김진숙, 2005). 성찰적 실천이란 문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에 성찰, 자각 등과 관련하여 심지은(2008)은 ‘마음챙김’의 상담자교육에 적용이 제안된 바 있다. 김교헌(2008)은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순간의 유기체적 경험에 수용적 주의를 기울여 또렷이 알아

차리는 것”이며 여기에 ‘주의의 초점을 현재 경험에 전일하게 맞추려는 동기 혹은 의도’와 주의와 알아차림의 과정을 감찰하고 통제하는 ‘상위인지적 기술’이라는 성분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러한 마음챙김을 바탕으로 자기조절이 된다면 지혜가 발달한다고 하였다(김교헌, 2008).

지혜 발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개인의 성찰과 자각이 중요한 지혜 발달에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Curnow, 1999). 이러한 ‘성찰’, ‘자각’을 상담자교육 및 훈련에 접목시키는 것이 상담자의 지혜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자각과 성찰을 돕는 마음챙김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Ardel(2000b)의 인생회고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상담자 교육에 접목시킨다면 상담자의 통합과 관련되어 상담자발달 및 지혜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겪은 극적인 사건’ ‘극적인 상담사례’와 같은 주제를 회상하면서 내면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것은 지혜의 발달을 촉진시킬 것이다. 상담자교육에 기법 등 상담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나 상담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식 패러다임 등을 검토하고 통합하는 부분이 접목된다면 상담자교육이 풍부해지고 상담자의 지혜발달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교헌 (2008). 마음챙김과 자기조절 그리고 지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285-306.  
김진숙 (2005). 상담자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13-831.
- 김현정 (2003).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기위로능력 및 역전이관리능력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안영 (1998). 한국과 미국의 상담심리학자들이 지각하는 지혜의 비교. 대학상담연구, 9(2), 217-243.
- 노안영 (2001). 상담심리학에 있어 지혜의 역할. 심리과학, 10(1), 133-152.
-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의 자기 성찰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67-380.
- 손은정, 이혜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신교숙 (2000).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지은 (2008). 상담자 교육에서의 마음챙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307-328.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경연 (2005).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및 역전이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5).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789-812.
- 이규미, 오익수, 김진숙, 장재홍 (2001). 청소년 상담자 교육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선자, 최해림 (2002).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 특성: 초보자과 숙련자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17.
- 이수림 (2008)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검색 척도와 자기의식 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형득, 김계현, 김선남, 이숙영, 유성경 (1999). 청소년상담자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재영 (2001). 상담자의 개념화 발달수준과 사례개념화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chenbaum, W. A., & Orwoll, L. (1991). Becoming wise: A psycho-geront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Job.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2, 21-39.
- Ardelt, M. (2000a). Antecedents and effects of wisdom in old ag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aging well. *Research on Aging*, 22(4), 360-336.
- Ardelt, M. (2000b). Intellectual versus wisdom-related knowledge: The case for a different kind of learning in the later years of life. *Educational Gerontology*, 26, 771-789.
- Ardelt, M. (2003). Development and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5, 275-324.
- Ardelt, M. (2004). Wisdom as expert knowledge system: A critical review of a contemporary

- operationalization of an ancient concept. *Human development*, 47, 257-285.
- Ardelt, M. (2005). How wise people cope with crises and obstacles in life. *Revision*, 28(1), 7-19
- Baltes, P. B., & Smith, J. (1990). Towards a psychology of wisdom and its ontogenesis.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87-120).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 Staudinger, U. M. (2000). Wisdom: A metaheuristic (pragmatic) to orchestrate mind and virtue toward excellence. *American Psychologist*, 55(1), 122-136.
- Baltes, P. B., Staudinger, U. M., Maercker, A., & Smith, J. (1995). People nominated as wise: A comparative study of wisdom-related knowledge. *Psychology and Aging*, 10, 155-166.
- Brammer, R. (1997). Case conceptualization strategi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sts' experience levels, academic training, and mode of clinical inquir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4), 333-349.
- Brugman, G. M. (2000). *Wisdom: Source of narrative coherence and eudaimonia*. Delft, The Netherlands: Uitgeverij Eberon.
- Clayton, V. (1982). Wisdom and intelligence: The nature and function of knowledge in the later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Development*, 15, 315-323.
- Clayton, V., & Birren, J. E. (1980). The development of wisdom across the lifespan: A reexamination of an ancient topic. In P. B. Baltes &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 (pp.101-135). New York: Academic Press.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4), 349-354.
- Cummings, A. L., Hallberg, E. T., Martin, J., Slemmon, A., & Hiebert, B. (1990). Implications of counselor conceptualiz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0, 120-134.
- Curnow, T. (1999). *Wisdom, intuition, and ethics*. Aldershot, UK: Ashgate Publishing.
- Ericsson, K. A. & Lehmann, A. C. (1996). Expert and exceptional performance: Evidence of maximal adaptation to task constrain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273-305.
- Glück, J., Bluck, S., Baron, J., & McAdams, D. P. (2005). The wisdom of experience: Autobiographical narratives across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3), 197-208.
- Goodyear, R. K. (1997). Psychological expertise and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 An exploration of issu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3), 251-265.
- Hartman, P. S. (2000). *Women developing wisdom: antecedents and correlates in a longitudinal sample*. University of Michig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Helson, R., & Srivastava, S. (2002). Creative and wise people: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how they develop.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0), 1430-1440.
- Hogan, R. A. (1964). Issue and approaches in

-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s in adult competence*. Basel: Karger.
- Johnson, T. F. (1995). Aging well in contemporary socie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9, 120-130.
- Kekes, J. (1983). Wisdo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0, 277-286.
- Kramer, D. A. (1990). Conceptualizing wisdom: The primacy of affect-cognition relation.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279-31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mer, D. A. (2000). Wisdom as a classical source of human strength: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inqui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83-101.
- Levenson, M. R., Jennings, P. A., Aldwin, C. M., & Shiraishi, R. W. (2005). Self-transcendenc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0(2), 127-143.
- Levitt, H. M. (1999). The development of wisdom: An analysis of Tibetan Buddhist experien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2), 86-105.
- Levitt, H. M., Frankel, Z., Hiestand, K., Ware, K., Bretz, K., Kelly, R., McGhee, S., Nordtvedt, R. T., Raina, K. (2003). The Transformational experience of insight: A life-changing ev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7, 1-26.
- Loganbill, C., Han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3-4
- McKee, P., & Barber, C. (1999). On defining wisdo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9(2), 149-164.
- Montgomery, A., Barber, C., & Mckee, P. (2002). A phenomenological study of wisdom in later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2), 139-157.
- No, Ann-Young. (1993). *Wisdom as defined and perceived by counseling psychologists*. University of Kentuck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Orwoll, L., & Perlmutter, M. (1990). The study of wise persons: Integrating a personality perspective. In Sternberg, R. J. (Eds.),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160-17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New York: Basic Books.
- Skovholt, T. M., Ronnestad, M. H.,(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Chichester, England: Wiley.
- Skovholt, T. M., Ronnestad, M. H., & Jennings, L. (1997). In search of expertise in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professional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 361 - 369.
- Smith, J., Staudinger, U. M., & Baltes, P. B. (1994). Occupational settings facilitating wisdom-related knowledge: The sample case of clinical psycholog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5), 989-999.
- Staudinger, U. M., & Baltes, P. B. (1996). Interactive minds: A facilitative setting for wisdom-related performance?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46-762
- Staudinger, U. M., Maciel A. G., Smith, J., & Baltes, P. B. (1998). What predicts wisdom-related performance? A first Look at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facilitative experiential contex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2, 1-17.
- Staudinger, U. M., Smith, J., & Baltes, P. B. (1992). Wisdom-related knowledge in a life review task: Age differences and the role of professional specialization. *Psychology and Aging*, 7(2), 271-281.
- Takahashi, M., & Overton, W. F. (2002). Wisdom: A culturally inclusiv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3), 269-277.
- Taranto, M. A. (1989). Facets of wisdom: A theoretical syn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9, 1-21.
- Van Wagoner, S.,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 411-421.
- Webster, D. (2003). An exploratory analysis of a self-assessed wisdom sca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1), 13-22
- Wink, P., & Dillon, M. (2003). Religiousness, spirituality,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late adulthood: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and Aging*, 18(4), 916-924.
- Wink, P., & Helson, R. (1997). Practical and transcendent wisdom: Their nature and some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1), 1-15.
- Yang, Shih-ying. (2000). *Conceptions of wisdom among Taiwanese Chinese*. University of Y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원 고 접 수 일 : 2008. 12. 5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 22

게 재 결 정 일 : 2009. 2. 9

## **A Study of the Counselor Development and Wisdom: Comparison of the Counselor's Wisdom of the Level of Counselor Development**

**Su Lim Lee**

The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Seong 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counselor development and wisdom. For this study, the correlation analysis examined wisdom and career factors. Results revealed that, counselors' wisdom is related significantly to counselors' career factor, but, non-counselors' wisdom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career factor. The level of counselors' wisdom was analyzed by comparing one in novice-counselors group, experienced-counselors group and non-counselors group.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 of wisdom in the experienced-counselor group is higher than in novice-counselor group and non-counselor group. In addition, the level of wisdom in experienced-counselor group is higher than novice-counselor group in terms of 'Outlook and Insight', 'Adjustment of Emotion', 'Perspective Taking'.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wisdom, counselor, wisdom development, experienced counselor, novice counselor, counselor development, social desirability*